

국민 10명 중 4명

“내 이념 성향 중도”

한국인 10명 중 4명은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14일 나왔다.

이는 KBS 1라디오 대한민국 60년 특별기획 '한국인의 이념지도'가 광복절을 맞아 한국인의 이념지형을 짚어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이념 성향을 묻는 결과 '중도'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42.1%로 가장 많았고, '보수'는 30.2%, '진보'는 26.2%였다.

역대 최고의 대통령을 묻는 질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60.1%로 1위를 차지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2.1%,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9%로 뒤를 이었다. 반면 최악의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4%로 1위, 김영삼 전 대통령이 15.3%로 2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을 묻는 문항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연말뉴스

개 사육 시설도

내달부터 환경규제

60㎡ 이상 분뇨시설 의무화

개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 규제에 내달부터 처음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면적 60㎡(약 80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의 시설을 운영 중인 개 사육업자들은 내달 27일까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가축분뇨에 소, 돼지, 닭 등 기존 8종 외에 개가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분뇨처리시설은 천장과 바닥에 방수재를 사용하고 악취방지와 퇴비화시설, 퇴비저장소 등을 갖추어야 한다.

기한 내에 배설시설을 설치해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 현재 전국 72만 가구에서 230만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신고 대상은 77만 마리(33%) 정도로 추정된다.

연말뉴스

■ 광주 외국인 근로자들 올림픽 응원 진풍경

피부·언어는 달라도 애국심은 똑같아

지난 13일 오후 7시 광주시 광산구 옥동에 자리잡은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하루 일을 마치고 문화센터에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2008 베이징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에 한창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올림픽 유도 준결승 경기를 보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하브르(40)씨와 자라프산(33)씨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개막식 때부터 이들은 문화센터와 자취방 등에 모여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선수단의 주요 경기를 챙겨보고 있었다.

이날 문화센터에 모인 우즈베키스탄·몽골·태국·가나·나이지리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0여개 국가의 근로자 20여명이 자국 경기를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며 탄성과 환성을 연발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었다.

하브르씨는 "고국 생각이 간절하지만 아직 비자 기간이 남아 조금 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귀국을 미루고 있다"며 "며칠 전 우즈베키스탄이 유로에서 동메달 따는 걸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 같은 처지의 근로자들에게 음료수 한 병씩 돌렸다"고 말했다.

태국 외국인 근로자 요드락(23)씨는 "한 번은 한국, 태국선수가 모두 출전한 여자 역도 경기를 보고

목터져라 응원하며 이국 생활 외로움 달래

자국 메달 딸때 친구끼리 축하 메시지 전달

이 접속하다 보니 방송이 끊기는 경우가 잦아 올림픽 응원전이 말처럼 쉽지않았다.

나이지리아인 옥파라(29)씨는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보려고 했으나 TV중계가 안돼 인터넷으로 경기를 봤다"면서 "그러나 인터넷 중계가 자주 끊겨 제대로 경기를 즐기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옥동 외국인 문화센터에 모인 외국인 근로자 20여명이 2008 베이징 올림픽 한 국가 온두라스 간 축구 경기를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이 접속하다 보니 방송이 끊기는 경우가 잦아 올림픽 응원전이 말처럼 쉽지않았다.

한편, 광주시가 발간한 '2007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인구 142만460명 중 0.7%인 1만16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절대 다수가 공단밀집지역인 광산구에서 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우산 챙기세요 8월 15일 (음 7월 15일) 전국날씨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났다.

광주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25~31°C
포항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24~30°C
여수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25~29°C
완주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25~30°C
구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24~31°C
해남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25~30°C
홍천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24~30°C
고흥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23~31°C
영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23~30°C
진안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24~31°C
남원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24~31°C
원주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23~31°C
횡성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23~28°C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남해동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만바다=남서~서풍 파고 1.5~2.0m
목포 밀물 < 01:26 썰물 < 06:56
 13:10 18:42
여수 밀물 < 08:03 썰물 < 02:23
 20:49 14:06

▲해돋이 05:52 ▲해질 19:21 ▲달돋이 18:29 ▲달짐 03:52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날씨						
최저/최고	24/29	25/31	25/30	25/32	25/32	25/31

광주·전남 오늘 최고 20mm 비

광복절과 주말·휴일로 이어지는 3일동안의 연휴기간동안 광주·전남 지방에는 간간히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광복절인 15일 광주·전남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5~20mm까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전남 남해안에는 10~60mm까지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주말·휴일인 16, 17일은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거나,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주·화순·광양·순천에 발령됐던 폭염주의보는 14일 오후를 기해 해제됐으며, 연휴기간동안 비가 오면서 불볕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광주·전남 수형자 55명 광복절 가석방

광복절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범 수형자 55명이 가석방됐다.

광주지방교정청은 14일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전남지역 교도소 수형자 중 모범수형자 55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교도소별로는 ▲목포교도소 12명 ▲순천교도소 13명 ▲장흥 교도소 7명 등이다.

이들은 수용기간 동안 각종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 자결증을 취득하거나 모범적인 수용생활로 우수 표창을 받은 수형자들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염물질 배출 18곳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장마를 틈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전남·북 지역 사업장 3곳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청은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3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8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돼 행정 조치했으며, 특히 3곳은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 입건을 결정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곡성군의 H 합관 가공 공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5~6년 동안 합관 도색을 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을 무단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구례·청도주민 등 890명 균경이 살해"

진실화해위 발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구례 여순사건, 청도사건, 강화사건 등 3개 지역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민 890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례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49년 7월 발생한 여순지역의 군인 반란 사건 직후 구례군 일대에서 다

수의 민간인들이 균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된 사건. 진실화해위는 "군인반란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확인된 희생자만 165명이지만 전체 희생자는 8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사과하고 위령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대불대 임시이사 선임"

교수협·시민단체 촉구

최근 영암 대불대 법인 이사장과 총장이 선임된 것과 관련, 대불대 교수들과 시민단체가 이사장에 대한 법적조치와 임시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대불대에 따르면 신임 이사장에 목포백년회 감한 이사장이, 총장에 문석남 전 전남대 교수가 각각 임명돼 오는 22일 취임한다. 대불대 교수협의회(회장 안연준)와 사학비리척결 전남시민행동 등은 14일 성명서를 내

고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대불대 경영진의 비리가 단죄됐지만 하지 않고 있는 틈을 이용, 설립자인 전 총장의 절친한 고교 후배를 새로운 총장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이사장과 총장이 참신한 경영진인 것처럼 지역사회를 기만하려 한다"며 "현 정부의 무분별한 사면으로 비리 경영진들이 다시 학교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광고문의전화 052-1000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겐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어 합니다. 국제약품은 오노노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의 보급

- 콜레스테롤, 인산염, 인산염, 인산염, 인산염
- 동맥 경화증 예방, 미생물
- 당뇨, 고혈압 예방, 체중 감량, 주근깨 예방, 노화 예방, 비염 예방
- 알코올 해독 및 흡연자 타르 중독 예방, 비염, 위장장애, 위산 과다
- 면역력 강화, 노화 예방

아연의 보급

● 북유럽 최우수 품질의 천연 아연 함유 (100%)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yutenpharm.co.kr